

자비 나눔으로 인사동 거리는 '훈훈'

도선사 108산사 순례기도회 · 중앙신도회 부설 연우 포대화상 탁발 동참, 동지 팔죽 나누며 새해맞이 준비

“자~ 포대화상 배를 만지고 소원을 비세요~”
 “아이고~ 포대화상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스님 추운데 고생 많습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던 시민들이 각자의 소망을 마음속으로 빌면서 정성스레 포대화상의 탁발에 보시금을 넣고 포대화상의 배를 쓰옥 만진다.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며 사진을 찍기도 한다.
 예전과는 달리 유난히 추운 요즘 겨울이다. 연말연시와 동지를 맞아 '선목해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회주 해자, 이하 108산사순례기도회)와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연우(이사장 구자선)가 따뜻한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12월 17일 인사동에서 포대화상 탁발행진과 동지행사를 각각 진행한 두 단체는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를 훈훈하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행사였다. 이날 탁발행사에서는 길거리 후원금 620여 만 원이 모였다.
 해자 스님은 “이번 행사는 종단의 5대 결사의 하나인 나눔 결사 실행의 하나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고, 흉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 수재민에 자비의 보시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중앙신도회 사단법인 연우는 인사동 남인사 마당에서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과 배움, 새 희망의 동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5년부터 시작 돼 7회째 진행된 사업이다. 행사에는 포교원장 지원스님, 김의정 회장, 이현수 직할교구신도회장, 김규범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이사장, 황채운 반갑다 연우야 단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스님은 격려사에서 “부처님과 함께하는 동지날이 과거의 어두운 어리석음을 벗겨내고 밝은 지혜를 깨닫겠다는 서원일(誓願日)이 되길바란다”며 “함께 드시는

108산사순례기도회가 '연말연시 자비나눔 탁발'을 통해 탁발순례에 나선 것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다면 날의 오후, 주말이라 인파로 북적거리는 인사동 거리에 석가모니불 열불 소리가 울려 퍼졌다. 2000여 순례기도 회원들은 오전 수원 봉녕사 순례를 마친 뒤 안국동 로터리에서 인사동 4거리까지 108산사순례기도회의 상징인 포대화상을 모시고 행진했다.

포대화상 모시고 거리서 탁발행사
 모연금 620만원 태국 수재민에 전달
 동지 팔죽 나눔 행사엔 2천명 동참
 100여 어르신에게 무료치과 검진도

중국의 선승이었던 포대화상은 체구가 비대하고 배가 볼록하며 항상 커다란 자루를 둘러메고 다녔다. 땅을 방바닥으로, 구름을 이불 삼아 이 곳 저 곳 돌아다니면서 자루 속에는 항상 장난감, 과자, 옛 등을 넣고 마을을 돌며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기에 미륵보살의 화현이라 해 신앙의 대상으로 섬겨졌다. 포대화상은 개신교의 산타클로스나 같은 불교의 상징적 존재로서 알려져 내려왔다. 이러한 유래 때문인지 배를 만지는 시민들의 모습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

팔죽은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린 사악함과 죄업을 버리고 청정법식(淸淨法食)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연우 임직원 및 봉사단원들과 김의정 회장은 직접 동지팔죽을 쑤어 거리를 지나가는 2000여 시민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사람들에게 팔을 나눠줘 잡귀를 쫓는 벽사(辟邪) 의식을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신년달려 나누기, 소원 쓰기, 풍물, 가야금, 난타 등 전통공연과 투호 던지기,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의료봉사단 반갑다연우야(봉사단장 황채운)가 100여 어르신과 이웃들에게 무료치과검진을 진행했다.
 김의정 회장은 “작금에 다양한 문화의 복합적 흡수로 인해 의미가 퇴색해 버린 동지팔죽이 진정하게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을 알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108산사순례기도회원 자체열 보살은 “날은 춥지만 산사를 순례하는 것과는 색다르게 의미 있고 좋다. 포대화상님 배를 만지면서 새해에도 가정에 좋은 일만 있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온 기도회의 실천행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선목 해자 스님(왼쪽)과 무주 스님(가운데) 도강 스님(오른쪽)이 인사동 거리에서 포대화상 탁발순례를 하고 있다.



(위)팔죽을 쑤어 나누어 주는 김의정 회장(가운데)과 봉사자들. (아래)시민과 불자들이 포대화상의 배를 만지며 소원을 빌고 있다.

동지 팔죽의 유래

동지(冬至)는 24절기 중 하나로 12월 22일이나 23일에 들게 된다. 이 날은 일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 음(陰)이 극(極)에 이르지만 이 날을 기점으로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해 양(陽)의 기운이 싹트는 사실상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다.
 예로부터 동지는 '다음 해가 되는 날 [亞歲]', 또는 '작은 설'이라 해 크게 축하하는 풍속이 있었다. 궁중에서는 이 날을 축일로 여겨 군신과 왕세자가 모여 음식과 달력을 나눴다. 민가에서는 나쁜 기운을 쫓기 위해 붉은 팔로 죽을 쑤어 나눠 먹었다. 귀신이 붉은 팔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불교는 이러한 고구 풍습을 그대로 받

아들여 동지법회와 행사를 열어 옛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팔죽을 쑤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있다.
 신라시대에 젊은 선비가 살았는데 사 람은 진심했으나 집안이 궁핍했다. 어느 날 객이 찾아와 하룻밤 묵을 것을 청하자 선비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둘은 친구가 됐다. 이후로 객은 종종 찾아와 선비를 부자로 만들어줬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객이 늘 한 밤 중에 찾아와 날이 새기 전 닭이 울면 사라지는 것이었다. 주인인 선비는 재산은 많이 모았으나 세월이 갈수록 몸이 아위어 가더니 아프기 시작했다. 건강이 더 악화되자 선비는 스님께 여쭙었다. 스님은 그 객에게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했다. 그래서 선비는 객에게 물으니 객은 '백

마의 피'를 가장 싫어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선비는 자신의 집안 구석구석에 백마를 잡아 그 피를 뿌렸다. 그랬더니 친절했던 객이 도깨비로 변해 도망을 가면서 선비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그런데 그 후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 선비는 건강이 다시 좋아졌지만 해마다 동지날이면 객이 잊지 않고 찾아온 것이다. 매해마다 백마를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선비가 스님에게 방도를 묻자 스님은 백마의 피 대신 색깔이 비슷한 팔물을 뿌리라고 했다. 이것이 동지날 불교에서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 붉은 팔죽을 쑤었다는 이야기다.
 타종교에서 벽사(辟邪)를 위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바르는 것과는 달리 불교에서는 팔을 이용해 불살생을 그대로 실천해 왔다.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3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국제 포교사(승려, 재가 법사) 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맘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웬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년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2012년 2월 10일. 수계의식 7박 8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서류마감 : 2012년 1월 10일

· 법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미얀마 관광청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

